

미움 없는 마음

- 누가 나라를 다스려야 하나?



사람의 마음에 미움이 쌓이면 공격적이 되어 싸움을 하게 된다. 반대로 사람의 마음에 미움이 없으면 희생적이 되어 사랑을 하게 된다. 사람의 마음에 짐승의 수성獸性이 강화되면 미움이 쌓이고 하늘의 영성靈性이 상승하면 미움이 사라진다. 예수가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하느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태 5:48)고 말하였다. 예수가 말한 온전한 사람이란 하늘의 영성인 얼나로 솟나 미움이 없고 사랑이 넘치는 성숙된 인격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공자孔子가 “하느님을 원망치 않고 사람 탓도 않는다(不怨天不尤人)”고 하였고 맹자孟子가 “천하에 미운 적이 없다(無敵於天下)”고 한 것은 그 맘속에 미움이 없고 사랑만 있는 성숙된 인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는 바리새인들의 박해를 받아도 미워하지 않았고 석가는 브라만들의 음해를 입어도 미워하지 않았다. 예수와 석가는 그 맘속에 하느님의 얼(성령)이 가득찬 성숙된 인격의 소유자들이라 제나(自我)의 수성獸性이 온전히 죽어 없어진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멀망의 생명인 제나(自我)에서 영원한 생명인 얼나로 솟났다고 한다. 이른바 중생득도重生得道를 한 것이다. 얼나는 개체생명이 아니라 전체생명이라 남이 없다. 남이 없는데 미워할 대상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도 제나(自我)로는 짐승이기 때문이다.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한 맹자도 “사람이 새나 짐승과 다른 점은 아주 적다”고 하였다. 생물학자

모리스는 동물의 본능을 먹기(feeding) 싸우기(fighting) 새끼치기(sex)라고 하였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탐·진·치貪瞋痴 삼독三毒이라고 한다. 사람도 몸뚱이로는 짐승이라 삼독으로 생존(종족보존)을 한다. 생존에 위협을 느끼면 미움을 일으켜 공격을 하게 된다. 빈 라덴이 미국에 대해 테러를 감행한 것이나 미국이 이슬람국가를 침공한 것도 따지고 보면 똑같이 생존위협에 대한 미움의 발로인 것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금찍한 싸움도 그들의 맘속에 쌓인 미움의 표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남북통일이 언제 될까? 남북한 겨레의 맘속에 쌓인 미움이 없어질 때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겨레의 맘속에 하느님의 성령이 드리워져야 한다.

신상우 전 국회부의장이 노무현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라고 물었을 때 노무현대통령이 “미워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집니다”(조선일보)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사실 지난 2년 동안의 재임기간에 노대통령 특유의 논리적인 화법에는 공격적인 미움이 배어있어 걱정스러웠다. 대통령의 자리는 한 정당의 당수의 자리는 천양지차로 다르다. 그 자리는 알기 쉽게 말하자면 국조國祖 단군의 자리라 일시동인—視同仁이 있을 뿐이다. 편애나 편중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미운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는 그 말과 함께 노대통령의 말씨가 요즘에 많이 부드러워진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해외순방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노대통령의 화법과 말씨는 올 들어 그 달라짐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들이다. 우선 튀는 표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관용과 포용을 강조하면서 편 가르기 화법도 거의 사라졌다”(문화일보) 아니나 다를까 2년 동안 꽁꽁 얼어붙기만 하던 시장 경기가 풀리기 시작하였으니 참여정부가 물고 온 경기 한파가 물려가는 게 틀림없어 보인다. 집권한 이들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이들을 미워하는데 그들의 경제활동이 주눅이 안들 수 없지

않겠는가? 여유 있는 이들이 돈을 안 쓰는데 어떻게 경기가 좋아질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지난해에 다른 나라는 다 경기 가 팬찮은 편이었는데 우리나라만 경기가 열어붙게 된 것으로 보인다.

미워할 증憎자와 시루 증餓자는 통한다. 미움을 시루 떡 쌓듯 쌓아놓고 밑에 불까지 때는 것을 상형象形한 것이다. 시루에 시루떡 찌듯 미움을 찌고 있으면 우선 본인의 건강에 좋지않다. 소화기관에 장애를 가져오고 정신분열을 일으킨다. 희세稀世의 살인마로 일컬어지고 있는 유영철의 범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자기와 직접적인 원한 관계는 전혀 없는 여러 사람을 살해하였기 때문이다. 정신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정신이상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학생시절부터 읽어온 책을 보고서 그의 맘속에는 미움이 용광로에 쇳물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의 수사백서에 의하면 그가 읽고 흡모한 사람이 체 게바라, 히틀러, 김일성, 니체, 쇼펜하우어 등이었다는 것이다.

체 게바라는 남다른 진성曠性을 지니고 태어나 모험과 투쟁을 즐겼다. 거기에 빈부의 격차가 비교적 심한 남미에서 잘사는 부자는 무조건 미워하였다. 남의 나라인 쿠바 공산혁명에 큰 공을 세웠으나 카스트로와 노선 갈등으로 갈라섰다. 쿠바 인민들은 공산혁명 뒤에도 여전히 독재와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누구를 위한 공산혁명이었던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칼을 가진 이는 칼로 망한다고 예수가 말하였거니와 총을 든 체 게바라는 총에 맞아죽었다.

히틀러는 아우슈비츠에서의 엄청난 유대인 학살이 밀해주듯이 인류역사에 드문 미움의 화신化身이다. 김일성은 한국전쟁을 일으킨 것은 두고라도 무자비한 정적의 숙청이 보여주듯이 미움으로 뭉쳐진 사람이다. 북한 방송이 50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미움의 독기를 뿜고 있는 것은 바로 김일성 부자의 미움을 일러주는 것이다.

니체와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불신, 혐오, 경멸한 미움의 염세철학자들이다.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사숙하였다. 니체는 오래 친한 사람이 없었고 쇼펜하우어는 어머니를 미워하여 결혼도 하지 않았다. 유영철이 하나같이 사람을 미워하는 새디스트들을 좋아하였으니 그의 업기적인 살인행각을 심리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다. 스승 류영모가 말하기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마하트마 간디는 권총탄환에 암살되었다. 고금古今의 역사상 올곧은 사람의 최후가 사람들의 미움을 사지 않고 마친 일이 드물다. 미워하는 일이 적은 사회가 올라가는 사회이지만 미워함이 많은 사회일수록 열어지는 사회이다.”(류영모, 『다석어록』)

이 나라 정치인들이 전국 아래 부딪치는 붕당정치에서 헤어

나지 못하는 까닭은 살아남겠다는 동물적인 본성이 유달리 강하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동물적인 인생관을 버리지 않는 이상 상생相生하는 정치는 백년하청百年河清으로 바라기 어렵다. 예수의 인생관을 본받아야 한다. “사실 인자人子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려 온 것이다.”(마태 20:28) 톨스토이는 『인생론』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동물적인 개인의 행복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생활의 철칙이다. 반드시 이성理性적 의식意識에 의하여 영靈적인 생명으로 중생重生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영적인 생명(얼나)으로 솟난 이는 예수의 이 말을 주저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나(얼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받게되면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마태 5:11-12) 마하트마 간디는 이것을 깨달아 그렇게 살았다.

마하트마 간디는 조국 인도를 1백년이 훨씬 넘도록 식민지배로 사회적으로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수탈하는 영국사람들에게 비폭력으로 저항하여 온갖 수모와 박해를 입었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격정을 못 이겨 폭력화하려는 인도사람들을 다독여 누그려트렸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의 맘속에 계시는데 누가 누구를 미워한단 말인가? 온전한 비폭력의 진리파지운동에 미움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M.K.간디 『명상의 일기』) 외화를 벌어들여 경제적인 선진국이 되려고만 하지 말고 맘속에 미움을 버려 정신적인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다석 류영모의 얼의 노래



박영호 풀이

258쪽

25.000원

두레